

《說文解字》“疒”部の 病名字 연구

朴興洙* 金志燕**

차 례

- I. 서론
- II. '내과'에 속하는 한자
- III. '외과'에 속하는 한자
- IV. 기타
- V. 결론

I. 서론

언어는 인류의 생활과 생산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류의 의사소통수단으로 문자 발생 이전까지 사람들 간에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 기호가 바로 문자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과 국가의 문화를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체계로 언어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듯이 문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자는 한어를 기록하는 부호체계이다. 한자는 한어를 기록하고 사상을 교류하는 기본 임무 외에 상당히 풍부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자는 表意性이 강한 문자이므로 매 한자마다 독특한 구조와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현대 훈고

학의 기준으로 보면 한 한자의 해석은 바로 하나의 文化史라고 할 수 있다.”¹⁾ 우리는 한자를 고대인들이 甲骨·陶器·青銅器·簡帛 등에 남긴 “活化石”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활화석”을 이용하여 고대문화를 연구하면 기타 출토문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²⁾

인류의 문화를 언급할 때 衣食住와 더불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生老病死이다.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류 문화에서 衣食住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生老病死 중에서 질병은 인간의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까지 이에 대한 관심과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질병에 관계된 한자의 의미파생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說文解字》(이하 《說文》으로 약칭)에서 ‘疒’部에 속한 한자들의 자형구조를 분석하고 개별글자의 본의와 파생의미를 파악하여 글자 상호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說文》에서 ‘疒’을 부수로 하는 102개의 한자는 《說文》에서 풀이한 字義에 따라 ‘병’, ‘치료’, ‘병의 원인’, ‘병의 증상’, ‘병명’을 나타내는 다섯 부분의 의미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다섯 부분의 의미영역 중 본 논문에서는 당시 인식하고 있는 질병 분야가 현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병명’을 나타내는 한자를 각 과별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내과, 외과, 기타(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정신과, 수의과)의 영역에 포함된 40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說文》에서 ‘병’을 나타내는 ‘疒’을 부수로 하는 한자 중에 병명을 나타내는 40개 한자를 각 과별로 분류한 후 고문자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미를 파악하고 그와 관계된 문화적 요소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내과’에 속하는 한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parkhs@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 9746iris@hanmail.net

1) 沈兼士, 《沈兼士學術論文集》, 中華書局, 1986년, 202쪽.

2) 박홍수 남중호, 〈漢字文化學 試論〉, 中國言語研究 12집, 2001년 6월

1. 일반 내과


1) 疔

| | | | |
|---|----|---|---|
|  甲三二八 | |  |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疔’의 갑골문 자형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 손으로 배를 누르는 형상을 본 뜬 것이다.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小腹病. 從疒, 疒省聲.(아랫배가 아픈 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疒의 생략형을 음부로 한다.)”³⁾고 하였다. 《廣雅·釋詁一》에서 “疔는 병이다.”라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는 “疔는 심장과 배의 질병이다.”라고 하였으며 余岩의 《古代疾病名候疏義》 4권에서는 “疔는 오늘날의 腹水이다.”라고 하였다.⁴⁾

종합해 보면 ‘疔’는 아랫배가 아픈 증상으로 오늘날의 ‘腹水’를 말하는 것으로 내과 질병으로 분류하였다.

2) 痲

| | | | |
|-----|----|---|---|
| | |  |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痲病. 從疒, 林聲.(소변을 보기 어려운 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林을 음부로 한다.)”⁵⁾고 하였다. ‘痲’은 ‘麻’의 뜻 중 하나인 ‘마비되다, 저리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에서 의부 ‘疒’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자이다.

《釋名·釋疾病》에서는 “痲, 벌벌 떨다. 소변을 보기 어려워서 벌벌 떠는 모양이

3)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說文解字校訂本》, 鳳凰出版社, 2004년, 211쪽.


4) 《漢語大字典》1111쪽: 腹病; 腹水. 《廣雅·釋詁一》: “疔, 病也.” 《玉篇·疒部》“疔, 心腹疾也.” 余岩 《古代疾病名候疏義》卷四: “疔蓋即今之腹水.”

5)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痲’이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병을 뜻하는 본의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벌벌 떨다’라는 의미로 파생된 것을 알 수 있다. 《玉篇·疒部》에서는 “痲은 소변을 보기 어려운 병이다.”라고 하였다. 王筠은 《句讀》에서 “소변병이다.”라고 하였다.⁶⁾

종합해 보면 ‘痲’은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병으로 ‘벌벌 떨다’라는 파생의미를 가지며 오늘날 신장염, 방광염과 관계가 있다.


3) 疸

| | | | |
|-----|----|---|----|
| | |  | 疸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黃病也. 從疒, 旦聲.(황달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旦을 음부로 한다.)”고 하였다.⁷⁾ 徐鍇는 《繫傳》에서 “피로하여 열이 나고 얼굴빛이 누렇다.”고 하였다. 王筠은 《句讀》에서 “《方書》에 달병의 증상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황달이 그 중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 “소변이 노랗고 적색을 띄고 누워있는 자도 황달이다.”라고 하였다.⁸⁾

종합해 보면 중의에서는 비장과 위가 허약하여 열이 상승하여 생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노란 병을 황달이라고 한다. 그러한 황달을 뜻하는 자가 ‘疸’이다.

4) 痞

| | | | |
|-----|----|---|----|
| | |  | 痞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6) 《漢語大字典》1119쪽: 王筠句讀作“小便病也.”(1)lin 痲病. (2)lin 同“淋”. 淋症. 《釋名·釋疾病》: “痲, 懷也. 小便難, 懷懷然也.” 《玉篇·疒部》: “痲, 小便難病也.”




7)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8) 《漢語大字典》1114쪽: 黃疸病或稱黃病. 徐鍇繫傳: “勞熱而黃也.” 王筠句讀: “《方書》疸證有五, 黃疸其一也.” 《素問·平人氣象論》: “溺黃赤, 安臥者, 黃疸.”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痛也。從疒，否聲。(아프다. 疒을 의부로 하고 否를 음부로 한다.)”⁹⁾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는 “痞는 배 속이 엉킨 병이다.”라고 하였다. 徐鍇는 《繫傳》에서 “痞는 엉킨 병이다.”라고 하였다. 沈濤는 《說文古本考》에서 “痞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오랜 체증으로 인해 배 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창만(脹滿:복강에 물이 괴어 배가 팽창하는 증세)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南齊書·虞愿傳》에서 “음식이 점차 쌓여 가슴과 배가 팽창하고 기가 곧 끊어진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다.¹⁰⁾

종합해 보면 ‘痞’는 배 속에 멍쳐 덩어리가 생겨 아픈 병을 뜻하는 것으로 배 속에 덩어리가 멍쳐 배가 불룩하게 솟는 모양에서 ‘脹滿’의 의미로 파생되었다.

5) 痰

| | | | |
|-----|---|---|---|
| |  |  |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病(小)息也。從疒，夾聲。(호흡이 약한 것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夾을 음부로 한다.)”¹¹⁾고 하였다. 徐鍇는 《繫傳》에서 “痰은 병자의 숨결이 작다.”라고 하였다. 王筠은 《句讀》에서 “그러한 즉 小息은 기가 부족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²⁾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病息은 병자의 호흡이다.”라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痰’은 병으로 인해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염병


9)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10) 《漢語大字典》1117쪽: ①痛. ②腹內結塊. 卽痞塊. 《玉篇·疒部》: “痞, 腹內結病.” 五代徐鍇《說文解字繫傳·疒部》: “痞, 病結也.” 清沈濤《說文古本考》: “痞, 今人猶言腹中癥結爲痞.” ③(胸腹)脹滿. 《南齊書·虞愿傳》: “食逐夷積多, 胸腹痞脹, 氣將絕.”

11)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12) 《漢語大字典》1117쪽: 病人氣息微弱. 徐鍇繫傳: “痰, 病小息也.” 王筠句讀: “然則小息卽少氣之謂也.”

6) 瘧

| | | | |
|-----|----|---|----|
| | |  | 瘧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회의자로 《說文》에서는 “熱寒休作. 從疒, 從虐, 虐亦聲.(열과 오한이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疒과 虐으로 된 회의자로 虐은 또 음부이다.)”¹³⁾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오한과 열나는 것이 서로 번갈아 가며 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素問·瘧論》에서는 “말라리아의 시작은 먼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고 오한으로 벌벌 떨어 턱이 덜덜 떨리고 척추에 통증이 있고 오한이 끝나면 이내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 두통이 있고 갈증이 나서 찬 것을 마신다.”라고 하여 ‘瘧’이 말라리아를 나타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釋名·釋疾病》에서는 “瘧은 몹시 잔학하다.”라고 하여 ‘잔학하다’의 뜻도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말라리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古代에는 전염병이 돌면 치료 방법이 거의 없어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이것으로 볼 때 ‘瘧’이 학질의 증상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학질의 성질을 빗대어 나타내는 ‘잔학하다’의 의미로 파생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瘧’은 학질을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급성 전염병이다. 학질의 원인은 벌레 때문으로 발작을 할 때에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학질의 원인인 벌레에 따라 다르다. 하루 간격으로 발작을 하거나 이틀 간격으로 발작을 하거나 또는 일정하지 않게 발작을 한다. 증상은 오한과 열이 나도 열이 난 후에 많은 땀을 흘리고 두통과 갈증, 전신에 힘이 없으며 병이 오래되면 비장 비대증과 빈혈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7) 疟

13)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14) 《漢語大字典》1121쪽: ①瘧疾. 又叫“瘧子”. 段玉裁注: “謂寒與熱一休一作相代也.” 《素問·瘧論》: “瘧之始發也, 先起於毫毛, 伸欠乃作, 寒慄鼓頰, 腰脊具痛, 寒去則內外皆熱, 頭痛如破, 渴欲冷飲.” ②虐, 酷虐. 《釋名·釋疾病》: “瘧, 酷虐也.”

| | | | |
|-----|----|----|----|
| | | 𤑔 | 疢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有熱瘧. 從疒, 占聲. 《春秋傳》曰: “齊侯疥, 遂疢.”(열이 있는 학질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占을 음부로 한다. 《春秋左傳》에서 말하길 “제후도 음 때문에 아프고 동시에 열이 나는 학질 때문에 아팠다.”)¹⁵⁾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疢은 열은 있으나 오한이 없는 학질이다.”라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는 “疢은 학질이다.”라고 하였다.¹⁶⁾

종합해 보면 ‘疢’은 열만 나고 오한이 없는 학질을 뜻하는 것으로 전염병으로 분류하였다.

8) 痲

| | | | |
|-----|----|----|----|
| | | 痲 | 痲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二日一發瘧. 從疒, 亥聲.(이틀에 한번 발작하는 학질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亥를 음부로 한다.)”고 하였다.¹⁷⁾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컫는 이틀에 한번 발작하는 학질이다.”라고 하였다. 《廣韻·哈韻》에서 “痲는 학질이다.”라고 하였다.¹⁸⁾

종합해 보면 ‘痲’는 이틀에 한번 발작하는 학질로 전염병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5)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16) 《漢語大字典》1113쪽: 瘧疾的一種, 多日一發. 段玉裁注: “疢, 有熱無寒之瘧也.” 《玉篇·疒部》: “疢, 瘧疾也.”

17)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18) 《漢語大字典》1116쪽: 兩日一發的瘧疾. 也泛指瘧疾. 段玉裁注: “今人謂間二日一發爲大瘧.” 《廣韻·哈韻》: “痲, 瘧疾.”

9) 疢

| | | | |
|-----|----|----|----|
| | 𤑔 | 𤑔 | 疢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熱病也. 從疒, 從火.(열병이다. 疒과 火로 된 회의자이다.)”¹⁹⁾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그 글자는 ‘火’로 이루어진 글자이므로 열병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廣雅·釋詁一》에서는 “疢은 병이다.”라고 하였다.²⁰⁾ 이것으로 ‘열병’을 나타내는 것에서 ‘병’이라는 의미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疢’는 ‘疒’과 ‘火’로 된 字로 열이 나는 병을 뜻한다.

10) 疫

| | | | |
|-----|----|----|----|
| | | 𤑔 | 疫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民皆疾也. 從疒, 役省聲.(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役의 생략형을 음부로 한다.)”²¹⁾고 하였다. 《素問·刺法論》에서 “다섯 가지의 돌림병이 모두 서로 전염되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병의 증상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²²⁾

종합해 보면 ‘疫’의 본래의미는 유행성 급성 전염병으로 모든 돌림병의 통칭으로 쓰인다.

19)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20) 《漢語大字典》1113쪽: ①熱病. 段玉裁注: “其字從火, 故知爲熱病.” ②病. 《廣雅·釋詁一》: “疢, 病也.”

21)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22) 《漢語大字典》1112쪽: 流行的急性傳染病的通稱. 《素問·刺法論》“五疫之至, 皆相染易, 無問大小, 病狀相似.”

Ⅲ. ‘외과’에 속하는 한자

1. 피부외과

11) 疔

| | | | |
|-----|----|----|----|
| | 𠄎 | 疔 | 疔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頭瘍也。從疒，匕聲。(머리에 난 종기다. 疒을 의부로 하고 匕를 음부로 한다.)”²³⁾고 하였다. 賈公彥는 “疔는 머리에 난 종기로 머리에 피고름이 들어 있는 종기가 있는 것을 일컫는다. 또 ‘禿’라고도 하는데,禿은 피고름이 종기 안에 있는 것과 피고름이 종기 안에 없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고로禿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廣雅·釋言》에서는 “疔는 부스럼 딱지다.”라고 하였다.²⁴⁾이것으로 ‘疔’가 피고름이 든 종기라는 뜻에서 부스럼이 아물고 난 후 생긴 딱지라는 뜻으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疔’는 피고름이 있는 종기를 뜻하는 것으로 피고름이 있는 것과 없는 종기를 모두 다 나타내는 ‘禿’라고도 할 수 있다.

12) 痒

| | | | |
|-----|----|----|----|
| | | 痒 | 痒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23)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24) 《漢語大字典》1111쪽: ①頭瘡. 賈公彥疏: “疔, 頭瘍, 謂頭上有瘡含膿血者. 又云‘亦謂禿也’者. 禿含膿血者則入疔中; 禿而不含膿血者疔中可以兼之, 故云亦謂禿也.” ③瘡上結的薄殼. 《廣雅·釋言》: “疔, 痂也.”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瘍也。從疒，羊聲。(부스럼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羊을 음부로 한다.)”²⁵⁾고 하였다. ‘痒’의 본의는 ‘근심이 병이되다’로 후에 ‘鮮’으로 전용되었다. ‘鮮’의 본의는 ‘가려운 데를 긁다’이다. 이체자로 ‘癢’도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세 글자 모두 ‘痒’으로 쓰인다.²⁶⁾

《廣雅·釋詁上》에서 “痒은 병이다.”라고 하였다. 《集韻·漾韻》에서는 “痒은 상처다.”라고 하였다. 《周禮·天官·疾醫》에서는 “여름에 음이 있어 가려운 병이다.”라고 하였다. 王筠의 《句讀》에서는 “음으로 가려운 것은 부스럼과 음이다.”라고 하였다.²⁷⁾

종합해 보면 ‘痒’은 본래 ‘근심이 병이 되다’는 뜻이었으나 ‘鮮’의 의미인 ‘가려운 데를 긁다’라는 의미로 전용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說文》에서 풀이한 ‘痒’의 의미인 ‘가려운 증상을 동반하는 부스럼’이 파생된 의미를 알 수 있다.

13) 瘞

| | | | |
|-----|----|----|----|
| | 瘞 | 瘞 | 瘞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小腫也。從疒，坐聲。一曰族瘞。(작은 부스럼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坐를 음부로 한다. 族瘞이라고도 한다.)”²⁸⁾고 하였다. 桂馥의 《義證》에서는 “작은 부스럼이다.”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는 “瘞는 부스럼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작은 부스럼이란 오늘날의 여드름을 뜻하는 것이다. 《廣雅·釋詁二》에서는 “瘞는 악성종기다.”라고 하였다. 《說文·疒部》에서 “瘞는 族瘞이다.”라고 하였는데 黃焯의 《經典釋文彙校·春秋左氏音義之一·桓公傳六年》에서 “육축(말·소·양·닭·개·돼지)의 급성 전염병을 일컬어 族瘞이라고 하며 또는 族瘞(累)이라고도 한다.”고 하여 《說文》의 설명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²⁹⁾

25)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26) 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 653쪽.

27) 《漢語大字典》 1117쪽: ①優思成病. 《廣雅·釋詁上》: “痒, 病也.” ②癩瘡. 《集韻·漾韻》: “痒, 創也.” 《周禮·天官·疾醫》: “夏時有痒疥疾.” 清王筠 《說文句讀》: “痒疥者, 瘡疥也.”

28)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종합해 보면 '瘰'는 청소년의 얼굴이나 때로는 가슴, 등의 부위에 생기는 여드름을 뜻하며 악성 종양을 뜻하기도 한다.

14) 疽

| | | | |
|-----|----|----|----|
| | | 疽 | 疽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癰也。從疒，且聲。(악성종기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且를 음부로 한다.)”³⁰⁾고 하였다. '疽'는 깊고 패인 덩어리 모양의 악성 종기를 말하는 것으로 徐鍇의 《繫傳》에서는 “오래된 악성종기다.”라고 하였다. 《正字通·疒部》에서는 “악성종기가 오래된 것을 일컬어 疽라고 하고 疽는 오래되고 나쁜 것이다. 癰은 알고 크다.”라고 하였다.³¹⁾

종합해 보면 '疽'는 악성 종기를 뜻하며 얇은 것은 '癰'이라 하고 깊고 두꺼운 것은 '疽'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5) 癰

| | | | |
|-----|----|----|----|
| | | 癰 | 癰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癰也。從疒，麗聲。一曰：瘦黑。讀若隸。(악성종기다. 疒을 의부로 하고 麗를 음부로 한다. 다른 말로는 '瘦黑(아위고 검다)'이라고도 한다. 음

29) 《漢語大字典》1118쪽: ①癰子. 桂馥義證: “小腫也者.”《玉篇·疒部》: “瘰, 癰也.” ②癰. 《廣雅·釋詁二》: “瘰, 癰也.” ③族累. 六畜病. 《說文·疒部》: “瘰, 族瘰.” 黃焯《經典釋文彙校·春秋左氏音義之一·桓公傳六年》: “六畜之瘦曰族瘰, 或作族瘰(累).”

30)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31) 《漢語大字典》1114쪽: 結成塊狀的惡瘡. 浮淺的爲疽. 徐鍇繫傳: “久癰也.” 《正字通·疒部》: “癰之深者曰疽, 疽深而惡, 癰淺而大.”

은 ‘隸’자와 같다.)”³²⁾고 하였다. 錢坫은 《割詮》에서 “그 물결이 야위고 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集韻·支韻》에서는 “癰는 낮빛이 암황색으로 야윈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또 《霽韻》에서는 “癰는 야윈 모습이다.”라고 하였다.³³⁾

종합해 보면 ‘癰’는 피부외과의 질병에 해당하는 악성종기를 의미한다. 악성종기는 옛날에 치료방법이 미흡했으므로 병에 걸려 야위고 낮빛이 검어지는 것에서 ‘야위고 검다’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 癰

| | | | |
|-----|----|----|----|
| | 癰 | 癰 | 癰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腫也。從疒，隸聲。(종기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隸을 음부로 한다.)”³⁴⁾고 하였다. 피부 또는 피부 아래 조직에 화농성 염증이 생긴 것으로 《釋名·釋疾病》에서는 “癰은 막히다. 기가 잘 통하지 않고 막혀서 안에서 멎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靈樞經·脈度》에서 “육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종양이 되었다.”고 하였다. 《本草綱目·百病主治藥·癰疽》에서는 “癰疽는 깊은 것은 疽라 하고 얇은 것은 癰이라 하며 큰 것은 癰이라 하고 작은 것은 癰이라 한다.”고 하였다. 재난을 비유하여 가리키기도 했으며 《蒼頡篇》에서는 “癰은 코의 질병이다.”라고 하였다. 《論衡·別通》에서는 “사람이 四時의 즐거움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盲이라 하고 궁과 상을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聾이라 하고 향기와 악취를 코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癰이라고 한다.”고 하였다.³⁵⁾ 화농성 염증을 뜻하는 것에서 코에

32)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33) 《漢語大字典》1130쪽: ②瘦黑; 瘦貌. 《說文·疒部》: “癰, 瘦黑.” 錢坫割詮: “此面目癰黑字.” 《集韻·支韻》: “癰, 驚瘦也.” 又 《霽韻》: “癰, 瘦兒.”

34)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35) 《漢語大字典》1130쪽: ①腫瘍, 由皮膚或皮下組織化膿性的炎症引起. 《釋名·釋疾病》: “癰, 壅也, 氣壅否結裏而潰也.” 《靈樞經·脈度》: “六府不和, 則留爲癰.” 《本草綱目·百病主治藥·癰疽》: “癰疽: 深爲疽, 淺爲癰; 大爲癰, 小爲癰.” ②喻指禍害. ③鼻疾. 《蒼頡篇》卷中: “癰, 鼻疾也.” 《論衡·別通》: “人目不見青黃曰盲, 耳不聞宮商曰聾, 鼻不知香臭曰癰.”

농이 있어 막히는 것을 의미하는 코의 질병 즉 오늘날의 축농증을 뜻하는 것으로 파생되었다.

종합해 보면 '癰'은 화농성 염증이 있는 크고 얇은 종기를 말하는 것으로 후에는 화, 재난을 비유하여 쓰이기도 하였으며 코의 질병을 말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코의 질병은 오늘날의 축농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7) 癰

| | | | |
|-----|----|----|----|
| | | 癰 | 癰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乾瘍也. 從疒, 鮮聲.(마른 부스럼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鮮을 음부로 한다.)”³⁶⁾고 하였다. 피부가 곰팡이 균에 의해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을 말한다. 《釋名·釋疾病》에서는 “癰은 옮기다. 차차 젖어들어 옮겨서 날이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다. 고로 청나라 徐鍇는 癰을 ‘옮기다’라고 한 것이다.” 桂馥은 《義證》에서 “오늘날 癰에는 마른 것과 습한 것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廣雅·釋詁一》에서는 “癰은 상처다.”라고 하였다.³⁷⁾

종합해 보면 '癰'의 본의는 곰팡이 균에 의해 생기는 마른 부스럼을 말하며 곰팡이 균에 의해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증상에서 '옮기다'라는 파생의미가 생겨났다.

18) 癩

| | | | |
|-----|----|----|----|
| | | 癩 | 癩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36)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37) 《漢語大字典》1130쪽: 皮膚感染黴菌引起的疾病. 《釋名·釋疾病》: “癰, 徙也. 侵淫移徙處日廣也. 故青徐謂癰爲徙也.” 桂馥義證: “今癰有乾濕兩種.” 《廣雅·釋詁一》: “癰, 創也.”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惡疾倮也。從疒，蠱省聲。(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蠱의 생략형을 음부로 한다.)”³⁸⁾고 하였다. 徐鍇는 《繫傳》에서 “癘는 악성 종기가 있는 질병이다.”라고 하였다. 《素問·風論》에서는 “癘者는 피부에 열기가 많고 그 기가 맑지 못하여 코뼈를 썩게 하고 부패시켜 피부의 종기가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고 하여 ‘癘’가 문둥병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玉篇·疒部》에서는 “癘는 돌림병이다.”라고 하였다. 《周禮·天官·疾醫》에서는 “사계절에 모두 돌림병이 있다.”라고 하여 ‘癘’가 돌림병이라는 뜻으로도 쓰임을 알 수 있다.³⁹⁾

종합해 보면 ‘癘’는 악성종기가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흔히 문둥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둥병은 접촉에 의해 전염이 되는 병으로 여기에서 ‘돌림병’이라는 뜻으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에는 ‘죽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였다.

2. 신경외과

19) 癭

| | | | |
|-----|----|---|---|
| | |  |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頸瘤也。從疒，嬰聲。(목의 혹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嬰을 음부로 한다.)”⁴⁰⁾라고 하였다. 속칭 갑상선 질환을 말한다. 《釋名·釋疾病》에서는 “癭은 병 둘러치다. 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목의 혹 즉 주머니처럼 생긴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는 “癭은 목의 혹이다.”라고 하였다. 또 나무의 외부에 해충의 침해로 기형적으로 발육

38)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39) 《漢語大字典》1126쪽: ①麻風病. 徐鍇繫傳: “惡瘡疾也.” 《素問·風論》: “癘者, 有榮氣熱附, 其氣不清, 故使其鼻柱壞而色敗, 皮膚瘍潰.” ②癩疫. 《玉篇·疒部》: “癘, 疫氣也.” 《周禮·天官·疾醫》: “四時皆有癘疾.”

40)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되어 융기된 혹같이 생긴 것을 말하기도 한다.⁴¹⁾ 이것은 파생된 의미를 말한다.

종합해 보면 ‘癭’은 목 부위에 자란 혹을 말하는 것이다.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생긴 혹을 절대 ‘癭’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癭’은 오늘날의 갑상선을 말하는 것이다.

20) 癭

| | | | |
|-----|----|----|----|
| | | 癭 | 癭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頸腫也。從疒，婁聲。(목의 종기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婁를 음부로 한다.)”⁴²⁾고 하였다. 이것은 경부 임파선 결핵을 가리키는 것이다. 《靈樞經·寒熱》에서는 “한열 임파선 결핵은 목에서 겨드랑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⁴³⁾

21) 瘤

| | | | |
|-----|----|----|----|
| | | 瘤 | 瘤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腫也。從疒，留聲.(종기다. 疒을 의부로 하고 留를 음부로 한다.)”⁴⁴⁾고 하였다. 《釋名·釋疾病》에서는 “瘤는 흐르다. 피가 흘러서 모여 생긴 종양이다.”라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 “瘤는 폴립⁴⁵⁾이다.”라고 하였다. 종기는 걸

41) 《漢語大字典》1130쪽: ①頸瘤, 俗稱大脖子. 屬甲狀腺腫大的一類疾病. 《釋名·釋疾病》: “癭, 嬰也, 在頸嬰喉也.” 段玉裁注: “頸瘤即如囊者也” 《玉篇·疒部》: “癭, 頸腫也.” ②樹木外部隆起如瘤之物.

42)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43) 《漢語大字典》淋巴結核. 《靈樞經·寒熱》: “寒熱瘰癧在于頸腋者.” p.1125

44)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45) 피부 또는 점막 등의 겉면에 줄기를 가지고 돋아 나온 원형·타원형·계란형의 종류(腫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으로 볼록하게 부어오르는 것으로 증기가 난 그 모양에서 '물체 표면에 융기된 덩어리'라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46)


22) 瘰

| | | | |
|-----|----|---|----|
| | |  | 瘰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寄肉也. 從疒, 息聲. (기생하는 살덩어리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息을 음부로 한다.)”⁴⁷⁾고 하였다. 徐鍇는 《繫傳》에서 “자란 것은 몸 밖에 생겨 자란 것이다.”라고 하였다. 《廣韻·職韻》에서는 “瘰은 악성 덩어리이다.”라고 하였다.⁴⁸⁾ 종합해 보면 ‘瘰’은 일종의 종양으로 기생하는 덩어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일컬어 ‘瘤’라고 하고 감춰져서 안에 있는 것을 ‘瘰’이라고 한다.

3. 정형외과

23) 疔

| | | | |
|-----|----|---|----|
| | |  | 疔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俛病也. 從疒, 付聲. (구부러진 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付를 음부로 한다.)”⁴⁹⁾고 하였다. 余岩은 《古代疾病名候疏義》卷四에서 “오늘날

46) 《漢語大字典》1124쪽: ①体表或筋骨間的贅生物. 《釋名·釋疾病》: “瘤, 流也. 血流聚而生瘤腫也.” 《玉篇·疒部》: “瘤, 瘰肉也.” ②物體表面隆起的疙瘩或塊狀物.

47)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48) 《漢語大字典》1123쪽: 寄生在身體局部的肉疙瘩. 徐鍇繫傳: “息者, 身外生之也.” 《廣韻·職韻》: “瘰, 惡肉.”

척추 뒤가 구부러진 것으로 곱사등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廣雅·釋詁二》에서는 “**疴**는 짧다.”라고 하였다.⁵⁰⁾

종합해 보면 **疴**의 본의는 척추가 구부러진 병을 말하며 등이 굽으면 키가 작아지는 데에서 ‘짧다’라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24) 瘡

| | | | |
|-----|----|----|----|
| | 瘡 | 瘡 | 瘡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跛病也。從疒，盍聲。讀若瘡，又讀若掩。(다리를 저는 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盍을 음부로 한다. 협으로도 읽고 엄으로도 읽는다.)”라고 하였다.⁵¹⁾ 다리를 저는 병이라는 뜻 이외에도 숨이 가쁜 병이라는 뜻도 있다. 《廣韻·盍韻》에서는 “瘡은 숨이 가쁘다.”라고 하였다.⁵²⁾

종합해 보면 ‘瘡’의 본의는 다리를 저는 병으로 절름발이를 가리키며 다리를 저는 사람이 힘들게 걷는 모양에서 ‘숨이 차다’라는 파생의미가 생겼다.

25) 瘡

| | | | |
|-----|----|----|----|
| | 瘡 | 瘡 | 瘡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罷病也。從疒，隆聲。(다리로 걸을 수 없는 병이다. 疒을

49)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50) 《漢語大字典》1114쪽: ①脊椎彎曲, 不能仰起. 余岩 《古代疾病名候疏義》卷四: “(疴)蓋即今之脊椎後彎也, 亦名龜背.” ②短. 《廣雅·釋詁二》: “疴, 短也.”

51)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52) 《漢語大字典》1123쪽: ①跛病. ②病短氣. 《廣韻·盍韻》: “瘡, 短氣也.”

의부로 하고 隆을 음부로 한다.)⁵³⁾라고 하였다. 《廣雅·釋言》에서 “壁는 癘이다.”라고 하였다. 王念孫은 《疏證》에서 “《說文》에서 ‘壁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癘은 다리로 걸을 수 없는 병이다. 다리로 걸을 수 없는 것은 고로 癘病이라 일컫는다. 《史記·平原君傳》에서 ‘앉은뱅이가 말하길 신은 불행히도 다리로 걷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癘과 癘, 壁과 壁은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다. 王筠은 《句讀》에서 “癘은 불구자이다.”라고 하여 ‘癘’이 불구자라는 뜻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篇海類編·人事類·疒部》에서는 “癘은 늙다.”라고 하여 늙어 노쇠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⁵⁴⁾ 이것은 늙어서 노쇠하여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들어지므로 ‘늙어 노쇠하다’라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종합해 보면 ‘癘’은 ‘癘’, ‘壁’, ‘壁’과 같은 뜻을 지닌 자라고 볼 수 있으며 다리로 걸을 수 없는 병을 나타내는 뜻에서 다리로 걸을 수 없는 것은 불구자라 할 수 있다. 이에 ‘癘’은 포괄적으로 ‘불구자’를 뜻하기도 한다.

4. 치질

26) 痔

| | | | |
|-----|----|----|----|
| | 瘖 | 瘖 | 痔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後病也。從疒，寺聲。(항문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寺를 음부로 한다.)⁵⁵⁾고 하였다. 《增韻·止韻》에서는 “痔는 은밀한 상처다.”라고 하였다.

53)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54) 《漢語大字典》1126쪽: ①足不能行. 《廣雅·釋言》: “壁, 癘也.” 清王念孫疏證: “《說文》: ‘壁, 人不能行也’. 癘, 罷病也. 足不能行, 故謂之癘病. 《史記·平原君傳》: ‘壁者曰: 臣不幸有罷癘之病, 是也. 癘、癘, 壁、壁竝同.” ②廢疾. 清王筠 《說文句讀·疒部》: “癘, 廢疾也.” ⑤老. 《篇海類編·人事類·疒部》: “癘, 老也.”

55)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素問·生氣通天論》에서 “포식 때문에 혈관이 연결해있지 않고 장에서 밀려나와 치질이 되었다.”라고 하였다.⁵⁶⁾

종합해 보면 ‘痔’는 밑으로 빠지는 병으로 항문 또는 직장 끝 부분의 정맥이 어혈로 확장되어 돌출된 작은 결절, 즉 오늘날의 치질을 말한다.

IV. 기타

1. 소아과

27) 癩

| | | | |
|-----|----|----|----|
| | | 癩 | 癩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 “病也。從疒，間聲。(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間을 음부로 한다.)”⁵⁷⁾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 “癩은 아이가 지랄병이 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增補萬病回春·信集·癩證》에서는 “간질환자는 갑자기 까무러치고 몸에 힘이 풀리고 이를 갈고 침을 흘리고 점점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바로 깨어나는 자를 간질병이라 한다.”고 하였다.⁵⁸⁾


종합해 보면 ‘癩’은 뇌의 질환과 뇌의 외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발작 시에 갑자기 기절하고 흰 거품을 토하고 전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상실하는 것이다.

56) 《漢語大字典》1115쪽: ①肛門病, 通稱痔瘡. 《增韻·止韻》: “痔, 隱創也.” 《素問·生氣通天論》: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澀爲痔.”

57)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0쪽.

58) 《漢語大字典》1127쪽: 病名. 發作時痙攣, 意識消失, 卽羊癩風. 《玉篇·疒部》: “癩, 小兒癩(癩)病.” 《增補萬病回春·信集·癩證》: “癩病者, 卒暈倒, 身軟, 咬牙, 吐涎沫, 遂不省人事, 隨後醒者, 癩病也.”


28) 癩

| | | | |
|-----|----|---|----|
| | |  | 癩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病也。從疒，從聲。(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從을 음부로 한다.)”⁵⁹⁾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는 “癩은 병이다. 또 계종(癩癧)으로 소아병이다.”라고 하였다. 《集韻·用韻》에서는 “癩은 계종, 풍이다.”라고 하였다.⁶⁰⁾

종합해 보면 癩癧은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병으로 癩癧은 연면어(聯綿語)로 의미는 ‘抽搐’과 같은 ‘경련을 일으키다’이다. 이 병은 오늘날 ‘抽風’으로 쓰인다.

29) 癩

| | | | |
|-----|----|---|----|
| | |  | 癩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小兒癩癧也。從疒，𠂔聲。(소아가 경련을 일으키는 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𠂔를 음부로 한다.)”⁶¹⁾고 하였다. 《急就篇》의 第4章에서 顏師古는 “癩癧은 소아의 질병으로 오늘날의 간질병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오늘날 소아의 경풍이다. 癩의 구어는 掣이고 癧의 구어는 縱이다.”라고 하였다.⁶²⁾

종합해 보면 ‘癩’는 소아의 경련을 뜻하는 字로 ‘癩’과 같은 뜻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59)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60) 《漢語大字典》1125쪽: 小兒驚風. 《玉篇·疒部》: “癩, 病也. 又癩癧, 小兒病.” 《集韻·用韻》: “癩, 癩癧, 風病.”

61)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62) 《漢語大字典》1123쪽: 癩病. 俗稱抽風. 《急就篇》第四章: 顏師古注 “癩癧, 小兒之疾, 卽今癩病也.” 段玉裁注: “今小兒擊病也. 癩之言掣也, 癧之言縱也.”

2. 이비인후과




30) 癩

| | | | |
|-----|----|---|---|
| | |  |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散聲. 從疒, 斯聲.(낮은 소리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斯를 음부로 한다.)”⁶³⁾고 하였다. 《方言》 6卷에서는 “癩은 散이다. 동쪽 齊나라에서는 소리가 금이 가는 것을 일컬어 癩이라고 했고 秦·晉나라에서는 소리가 변하는 것을 일컬어 癩이라고 했다. 물건이 깨질 때 구분되지 않는 그 음 또한 癩이라고 한다.”⁶⁴⁾

종합해 보면 癩은 목소리가 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비인후과에 속하는 한자로 분류할 수 있다.

31) 瘖

| | | | |
|-----|---|---|---|
| |  |  |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不能言也. 從疒, 音聲.(말을 못하는 것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音을 음부로 한다.)”⁶⁵⁾고 하였다. 《素問·宣明五氣篇》에서 “맥박에 양기가 있으면 즉 머리가 아프고, 맥박에 음기가 있으면 병어리가 된다.”고 한데 대해 王冰은 “기운 안에 음기가 있으면 혈관이 잘 흐르지 않는다. 고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注하였다. 또 다른 뜻으로는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晏子春秋·內篇諫下

63)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64) 《漢語大字典》 1126: 聲破 ; 沙啞. 《方言》卷六: “癩, 散也. 東齊聲散曰癩……秦晉聲變曰癩, 器破而不殊其音亦謂之癩.”

65)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第二》에서는 “왕조로 사는 것은 엄격하여 말이 없어야 한다. 말이 없는 것은 즉 듣지도 않는 것이다. 말이 없는 것을 일컬어 瘖이라고 하고 듣지 않는 것을 일컬어 聾이라고 한다.”고 하였다.⁶⁶⁾ 이것은 ‘말을 못하다’의 의미에서 파생되었다.

‘瘖’은 은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疾言”이다. 갑골문에 많은 “疾言”의 복사가 있는 것은 은나라 사람들이 구강질병에서 인후병환이 야기됐다는 것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인후 옆 사이에서 감염되었거나 편도선 주위의 농양이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 곤란하거나 목소리가 쉬는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3. 안과

32) 瘍

| | | | |
|-----|----|----|----|
| | | 瘍 | 瘍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目病。一曰：惡氣箸身也。一曰：蝕創。從疒，馬聲。(눈병이다. 다른 뜻은 ‘몸에 나쁜 기운이 끼쳐 병이 생긴 것’이다. 또 다른 뜻은 ‘약물을 이용해 종기의 나쁜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馬를 음부로 한다.)”⁶⁷⁾라고 하였다.

桂馥은 《義證》에서 “눈병이라는 것은 눈에 눈곱이 생겨 병이 된 것으로 속칭 ‘瘍鬻’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몸에 나쁜 기운이 끼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또 《廣韻·禡韻》에서 “瘍는 마소의 병이다.”라고 하였으며 《集韻·諫韻》에서도 “瘍는 가축의 병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蝕은 상처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⁶⁸⁾

66) 《漢語大字典》1122쪽: ①失音病:啞. 《素問·宣明五氣篇》:“搏陽則巔疾,搏陰則爲瘖.”王冰注:“邪內搏於陰則脈不流,故今瘖不能言.”②緘默:不說話.《晏子春秋·內篇諫下第二》:“朝居嚴則下無言,下無言則上無聞矣.下無言則吾謂之瘖,上無聞則吾謂之聾.”

67)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1쪽.

68) 《漢語大字典》1123쪽: ①目病. 桂馥義證:“目病也者,謂目病生眵也,俗謂之瘍鬻.”②惡氣著

4. 산부인과

33) 疝

| | | | |
|-----|----|----|----|
| | | 疝 | 疝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病也。從疒，出聲。(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出을 음부로 한다.)”⁶⁹⁾고 풀이하였다. 張舜徽 《約注》에서 “오늘날의 속칭 자궁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正字通·疒部》에서는 “疝은 한마디로 부녀자가 아랫부분에 가지고 있는 것에 병이 나는 것으로 出은 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는 “疝은 ‘단절되다’이다.”라고 하였다.⁷⁰⁾

여기에서 ‘疝’은 여성의 자궁에 생기는 질병으로 인해 자궁을 제거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에는 자궁이 제거되어 아기를 가질 수 없음에서 파생되어 ‘단절되다’라는 뜻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34) 瘕

| | | | |
|-----|----|----|----|
| | 瘕 | 瘕 | 瘕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女病也。從疒，段聲。(부인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段를 음부로 한다.)”⁷¹⁾고 하였다. 《靈樞經·水脹》에서는 “뱃속에 돌이 쌓이고 자궁입구에 한기가 들어 자궁 입구가 막히고 기가 통하지 않아서 나쁜 피를 흐르게 하지 못하고

身. ③牲畜病. 《廣韻·禡韻》: “瘕, 牛馬病.” 《集韻·諫韻》: “瘕, 畜病.” ④敗瘡. 段玉裁注: “蝕者, 敗創也.”

69)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0쪽.

70) 《漢語大字典》1115쪽: ①病名. 《正字通·疒部》: “疝, 一說婦女帶下有出病, 出當卽疝.” ②斷. 《玉篇·疒部》: “疝, 斷也.”

71)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2쪽.

어혈로 남아있음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 배가 마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볼록 솟아오르고 월경이 막혀서 제 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모든 여자에게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일반인의 배 속에 생기는 덩어리를 총괄하여 가리키기도 한다. 《玉篇·疒部》에서는 “瘕는 배 속의 병이다.”라고 하였다. 《正字通·疒部》에서는 “瘕는 瘕瘕病(자궁근종)으로 배 속에 쌓인 덩어리로 단단한 것은 瘕이라 하고 형태가 있는 것은 瘕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배 속에 생기는 기생충병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⁷²⁾

종합해 보면 ‘瘕’는 瘕瘕로 오늘날의 자궁 근종을 말한다. 현대에 여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 근종이 고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여성의 질환 뿐 아니라 사람의 배 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기도 하였다.

5. 정신과

35) 瘖

| | | | |
|-----|----|----|----|
| | | 瘖 | 瘖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病也。從疒，眞聲。一曰：腹張。(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眞을 음부로 한다. 또 다른 뜻은 배가 부어오르는 병이다.)”⁷³⁾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瘖’은 지랄병을 가리킨다. 徐鍇 《繫傳》에서는 “瘖은 楊雄이 말하길 신은 지랄병이 있습니다. 瘖은 쓰러지다.”라고 하였다. 《廣韻·先韻》에서는 “瘖은 병이다. 瘖은 瘖과 같다.”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 “瘖은 미쳐 날뛰다.”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72) 《漢語大字典》1122쪽: ①婦女腹中結塊病。《靈樞經·水脹》：“石瘕生于胞中，寒氣客于子門，子門閉塞，氣不得通，惡血當寫不寫，衄以留止，日以益大，狀如懷子，月事不以時下，皆生于女子，可導而下。”也泛指一般人腹內結塊。《玉篇·疒部》：“瘕，腹中病。”《正字通·疒部》：“瘕，瘕瘕，腹中積塊，堅者曰瘕，有物形曰瘕。”②腹中生虫病。

73) 許慎 著，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0쪽.

배가 부어오르는 병이라는 뜻도 있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癩과 臙, 曠의 뜻은 대략 같다.”고 하였다. 《集韻·眞韻》에서는 “癩은 배가 부어오르는 병이다.”라고 하였다.⁷⁴⁾

종합해 보면 ‘癩’과 ‘癩’ 모두 ‘眞’에서 음과 뜻을 따왔으며 동음이다. 어떤 때는 아예 ‘癩’이라고 쓴다. ‘癩’의 본래 의미는 ‘머리꼭지’다. 여기서 파생되어 ‘착란하다’가 되었다. 그래서 ‘癩’은 바로 이러한 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36) 瘍

| | | | |
|-----|----|----|----|
| | | 瘍 | 瘍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脈瘍也. 從疒, 易聲.(발광하는 병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易을 음부로 한다.)”⁷⁵⁾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脈瘍은 쉽게 놀라는 병이다.”라고 하였다. 《廣雅·釋詁三》에서 “瘍은 미치다.”라고 하였다. 王念孫은 《疏證》에서 “《說文》에서 ‘瘍, 脈瘍也.’라고 한 것에서 脈瘍은 놀라 무서워서 물러나 피하는 것과 같다. 《吳語》의 ‘稱疾辟易.’에 대해 韋昭는 ‘辟易은 미쳐 날뛰는 병이다.’라고 注하였다.”라고 하였다.⁷⁶⁾

종합해 보면 ‘瘍’에 대해 許慎과 段玉裁의 의견은 서로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許慎의 의견인 ‘발광하는 병이다’에 더 힘을 실어 주고 있다.

37) 癡

74) 《漢語大字典》1123쪽: (1)diān 同‘癩’. 1. 癩癩病. 徐鍇繫傳: “癩, 楊雄曰: 臣有癩眩病. 癩, 倒也.”《廣韻·先韻》: “癩, 病也. 癩, 同癩.” 2. 癩狂. 《玉篇·疒部》: “癩, 狂也.” (2)chēn 腹脹病. 段玉裁注: “癩與臙, 曠字意略同.”《集韻·眞韻》: “癩, 腹脹病.”

75)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76) 《漢語大字典》1120쪽: 狂疾. 段玉裁注: “脈瘍者, 善驚之病也.”《廣雅·釋詁三》: “瘍, 癡也.” 王念孫疏證: “《說文》: ‘瘍, 脈瘍也.’ 脈瘍, 猶辟易也. 《吳語》: ‘稱疾辟易.’ 韋昭注云: ‘辟易, 狂疾.’”

| | | | |
|-----|----|----|----|
| | | 癡 | 癡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狂走也。從癡，尢聲。讀若欸。(광분하다. 癡을 의부로 하고 尢을 음부로 한다. 欸자와 같이 읽는다.)”⁷⁷⁾라고 하였다. 《廣雅·釋詁四》에서는 “癡은 미치다.”라고 하였다.⁷⁸⁾

종합해 보면 ‘癡’은 ‘미치다, 광분하다’의 의미로 정신과의 질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8) 癡

| | | | |
|-----|----|----|----|
| | | 癡 | 癡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不慧也。從癡，疑聲。(충명하지 못하다. 癡을 의부로 하고 疑를 음부로 한다.)”⁷⁹⁾고 하였다. 《方言》 10권에서는 “癡는 우둔하다.”라고 하였다. 또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癡者는 둔하다는 뜻으로 고로 충명하다는 뜻과 정반대이다.”라고 하여 ‘癡’가 ‘우둔하다’는 뜻이라고 하고 있다. 《正字通·癡部》에서는 “癡는 《方言》에서 머리가 미친병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癡’의 파생의미가 ‘미치다’임을 말해주고 있다.⁸⁰⁾

종합해 보면 ‘癡’는 또 ‘痴’라고도 쓰며 즉 오늘날의 ‘傻’에 해당한다. ‘癡’의 원래 의미는 ‘어리석다, 우둔하다’의 뜻이며 우둔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것에서 파생되어 《正字通·癡部》에서와 같이 ‘정신병’의 의미로 쓰였다. 본 논문은 질병과 관련된 것이므

77)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78) 《漢語大字典》 1113쪽: 狂走. 《廣雅·釋詁四》: “癡, 狂也.”



79)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4쪽.

80) 《漢語大字典》 1129쪽: ①呆傻; 遲鈍. 《方言》卷十: “癡, 駿也.”段玉裁注: “癡者, 遲鈍之意, 故與慧正相反.” ③癡狂病. 《正字通·癡部》: “癡, 《方言》借稱癡狂病.”

로 ‘癡’를 정신병으로 분류하였다.

6. 수의과



39) 瘵

| | | | |
|-----|----|---|---|
| | |  |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馬病也. 從疒, 多聲. 《詩》曰:“瘵瘵駱馬.”(말이 피곤함의 극에 달한 것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多를 음부로 한다. 《詩經》에서 말하길 “얼마나 피곤하면 백마가 검은 갈기가 자란다.”라고 하였다.)”⁸¹⁾라고 하였다. ‘瘵瘵’는 오늘날 ‘嗶嗶’으로 쓰이며 가축 따위가 헐떡이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徐鍇의 《繫傳》에서는 “말이 피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피곤한 것을 총괄하여 가리키기도 한다. 《玉篇·疒部》에서는 “瘵는 힘이 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廣韻·箇韻》에서는 “瘵는 병이다.”라고 하였다.⁸²⁾

종합해 보면 ‘瘵’는 말이 피곤하여 생기는 병을 뜻하는 한자였으나 사람이 피곤한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 피곤한 것은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이므로 힘이 다하였다는 뜻으로도 쓰였다. 나아가 기력이 모두 쇠진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병’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40) 瘵

| | | | |
|-----|----|---|---|
| | |  |  |
| 甲骨文 | 金文 | 小篆 | 楷書 |

81)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82) 《漢語大字典》1116쪽: 馬疲乏. 徐鍇繫傳: “馬疲乏也.” 又泛指疲乏. 《玉篇·疒部》: “瘵, 力極也.” 《廣韻·箇韻》: “瘵, 病也.”

형성자로 《說文》에서는 “馬脛瘍也. 從疒, 兌聲. 一曰: 將傷.(말의 아랫다리에 있는 부스럼이다. 疒을 의부로 하고 兌를 음부로 한다. 다른 뜻으로는 상처를 어루만지다.)”⁸³⁾라고 하였다. 《玉篇·疒部》에서는 “癩은 말의 정강이에 난 상처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將은 捋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朱駿聲은 《通訓定聲》에서 “癩은 상처를 어루만지다.”라고 하였다. 《集韻·薛韻》에서는 “癩은 상처다.”라고 하였다.⁸⁴⁾ 이것은 ‘말의 아랫다리에 있는 부스럼’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상처’를 뜻하는 것으로 파생된 것이다.

종합해 보면 말의 다리에 난 상처를 뜻하는 것으로 상처를 총괄적으로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본래 의미는 ‘말의 다리에 난 부스럼’이라는 뜻으로 수의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疒’을 부수로 하는 한자 중 병명을 나타내는 한자를 각각 내과, 외과, 기타(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정신과, 수의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내과에 속한 한자는 모두 10자로 일반내과에 속한 자가 疒, 痲, 疽, 痞, 痰 등 5자, 전염병에 속한 자가 癘, 疴, 疢, 疢, 疫 등 5자이다.

외과에 속한 자는 모두 16자로 피부외과에 속한 자가 疔, 痒, 痲, 疽, 癰, 癰, 癰, 癰 등 8자, 신경외과에 속한 자가 癩, 癩, 癩, 癩 등 4자, 정형외과에 속한 자가 疔, 癩, 癩 등 3자, 치질을 나타낸 자가 痔 1자이다.

기타 소아과를 나타낸 자가 癩, 癩, 癩 등 3자, 이비인후과를 나타낸 자가 癩, 癩 등 2자, 안과를 나타낸 자가 癩 1자, 산부인과를 나타낸 자가 癩, 癩 등 2자, 정신과를 나타낸 자가 癩, 癩, 癩, 癩 등 4자, 수의과를 나타낸 자가 癩, 癩 등 2자이다.

병명을 나타내는 한자들을 분석하였으나 의미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한자들이 본의

83)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같은 책, 213쪽.

84) 《漢語大字典》1118쪽: ①馬脛傷. 《玉篇·疒部》: “癩, 馬脛傷也.” ②捋傷. 段玉裁注: “將, 疑當作捋.” 《朱駿聲通訓定聲》: “癩, 捋傷也.” ③傷. 《集韻·薛韻》 “癩, 傷也.”

가 나타내는 병의 증상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로 파생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반해 파생의미가 없는 한자도 있었다. ‘疔’을 의부로 하는 한자는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병이 비록 가벼운 증세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었으므로 파생된 의미가 거의 부정적인 것이었다.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고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질병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질병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비슷한 증상이거나 같은 병이지만 미세한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한자를 쓴 것을 통해 당시 질병에 인식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수의과에 해당하는 글자에서 말에게 생기는 질병을 나타내는 字가 보이는데, 이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말이 어떠한 동물보다도 중시되었던 사회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裘錫圭 著 /李鴻鎮 譯, 《중국문자학》, 신아사, 2001.
- 郭沫若, 《甲骨文合集》, 中華書局, 1982.
- 桂馥, 《說文解字義證》, 齊魯書社, 1987.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 박흥수, 《중국 언어와 문자》,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 濮之珍 著 /김현철(外) 옮김, 《중국언어학사》, 신아사, 1999.
- 徐中舒, 《漢語古文字字形表》, 臺灣文史哲出版社, 1988.
- 徐中舒, 《漢語大字典》, 湖北辭書出版社, 四川書出版社, 1990.
- 손예철, 《중국문자학》, 아카넷, 2003.
- 沈兼士, 《沈兼士學術論文集》, 中華書局, 1986.
- 王寧, 《〈說文解字〉與中國古代文化》, 遼寧人民出版社, 2000.
- 王平, 《〈說文〉與中國古代科技》, 廣西教育出版社, 200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甲骨文編》, 中華書局, 1965.
- 湯可敬 撰,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1997.
- 何九盈, 胡雙寶, 張猛 《中國漢字文化大觀》, 北京大學出版社, 1995.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縮印本)》,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 許慎 著, 班吉慶 等 點校, 《說文解字校訂本》, 鳳凰出版社, 2004.
- 許進雄 지음/ 洪熹 옮김, 《중국고대사회》, 동문선, 1991.
- 박흥수, 〈한자에 반영된 중국의 교통문화〉, (중국학연구 16집, 1999), 중국학연구회
- 박흥수, 〈漢字所反映的中國文化〉, (중국어문학 36집, 2000), 영남중국어문화회
- 박흥수, 〈육서의 관점에서 본 간체자〉, (중국문학연구 23집, 2001), 한국중문학회
- 박흥수, 〈한자의 표의성과 표음성에 관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28집, 200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 박흥수 남종호, 〈한자문화학 시론〉, (중국언어연구 12집, 2001), 한국중국어학회

박흥수 남종호, 〈한자와 중국전통정치문화〉, (중국학연구 19집, 2001), 중국학연구
회

박흥수 남종호, 〈중국전통형법과 한자적 함의〉, (중국어문논역총간 10집, 2002),
중국어문논역학회

Abstract

A Study on Chinese Characters of Disease Names in Shuowenjiezi

Park, Heung Soo, Kim, Ji Youn

Among Chinese characters using '疒' from 《Shuowenjiezi》 in this article I have studied Chinese characters representing diseases by classifying them as internal medicine, surgery, and others (i.e. pediatrics, ear nose and throat [=ENT], ophthalmology, obstetrics, psychiatry, veterinary medicine).

There are ten Chinese characters relating to (belonging to) internal medicine: five (5) for general internal medicine (疔, 痲, 疽, 痞, 痰) and five (5) for infectious diseases (瘡, 疔, 疥, 疢, 疫).

Th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surgery amount to sixteen(16): eight(8) for dermatology (疔, 痒, 痊, 疽, 癰, 癰, 癰, 癰), four (4) for neurosurgery (癭, 癭, 瘤, 癭), three (3) for orthopedics (疔, 瘰, 癰), and one (1) for hemorrhoids (痔).

Other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diseases include three (3) for pediatrics (癩, 癩, 癩), two (2) for ear, nose and throat [=ENT] (癩, 瘡), one (1) for ophthalmology (癩), two (2) for obstetrics (疔, 瘡), four (4) for psychiatry (癩, 癩, 癩, 癩), and two (2) for veterinary medicine (疥, 癩).

In analyzing Chinese characters representing diseases in terms of meaning, most of them are derived from meanings that these Chinese characters originally had, and which represent the symptoms or the nature of these diseases.

Chinese characters using '疒' as a base character are associated with diseases. Even if some diseases are not at all serious, derived meanings almost always have negative connotations since these diseases are worrisome.

In cultural terms, we notice that the diseases ancient peoples identified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people of today. This shows that ancient peoples possessed considerable knowledge about diseases.

In addition, their knowledge about diseases was extensive and well organized,

seeing that they used different characters for various diseases on condition that they had minor differences, even if some diseases had similar symptoms or were same type of diseases.

Among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veterinarian medicine, there is a character, which represents a disease only affecting horses. This shows the social environment at an epoch, when horses were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 animals, because this was attributable to frequent wars.

Key Words : Shuowenjiezi, Chinese characters representing diseases, Chinese Culture